

테마칼럼

이성체제

정치프리즘

정태의 눈

문화칼럼

DJ 적자 한화갑, 스승을 뛰어 넘어라



김형

〈전 중앙일보 전문기자  
현(주)넥스투 투자 고문〉

“

한대표는 이제 'DJ의 적자'이기만 해선 안 된다. 그는 스승을 뛰어 넘어야 한다. 미국에 불신 받고, 북한에도 고깝다는 소리도 못듣는 신세에서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

”

언론의 질타가 매섭다. 핵실험이후 민주당이 햇볕정책을 두고 '오락가락'한다는 것이다. 한화갑 대표가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그는 "북한은 민족적 차원에서 다름 상대가 아니다"라고 했다가 'DJ 노선'을 거부한 것 아니냐는 집중공격을 맞았다.

그러자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금강산 관광은 지속가능"하고 "북핵 원인은 북한과 대화를 거부한 미국에 책임이 있다"며 무마를 시도했다. 24일에는 한 걸음 더 나가 "나와 DJ는 숙명적인 관계다. 배신하면 양심적 매춘을 하는 것"이라며 "절대 햇볕정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로써 때로는 민족공조를, 때로는 국제공조를 제시하는 등 냉온탕을 오간다는 지적에 대해 '민주당=햇볕정책'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북핵사태에 대해 북미책임론과 북미직접대화를 강조해 온 DJ를 거부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심분 이해된다.

민주당=햇볕정책

한 대표는 누구인가. 자타공인 '외교전문가'다. 그의 민족적 위기 앞에서 장고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게다. 이 기회에 모든 정치적 이해득실을 제쳐두고 그의 말의 행간을 살펴보자. 그는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3가지 의미 있는 발언을 했다. 첫째는 "참여정부의 대북 포용정책 실패는 미국 동의를 얻지 못한데 1차적 책임이 있

다"며 "DJ 때 햇볕정책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미국·일본과 협의해 함께 간다는 원칙이 있었다"라고 구분해, DJ의 햇볕정책이 아닌 노정권의 포용정책을 비난했다.

둘째는, "핵실험 이전에는 한국이 북한에 대해서 우위를 점했지만 핵 출현 이후에는 역전될 수 있다"며 "북한을 과거 햇볕정책의 대상으로 대할지, 과거 우리의 주적으로 우방과 손잡고 대적해야 할지를 결정할 때"라고도 했다. 또한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도 "UN 결의안이 나오면 우방과 상의해 결정할 문제"임을 강조했다. 즉, 이런 저런 눈치를 보면서 결국 동맹쪽에 방점을 둔 것이다.

DJ는 햇볕정책으로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그의 업적은 국제사회도 인정했고, 분명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했다. 그러나 북이 핵실험을 했다. DJ의 햇볕정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다. 나름의 충분한 의미가 있었지만 핵실험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노대통령이나 열린우리당처럼 북한이 핵실험을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북에 끌려 다녀서는 곤란하다. 북핵의 실질적인 위협대상은 미국이 아닌 '남한과 북한백성'이기 때문이다.

국가안보와 한미공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DJ의 햇볕정책 고수여부를 두고 국민을 졸세우는 것은 정치적 사기다.

호남대중이 무슨 죄가 있나? 왜 이 시각, DJ의 햇볕정책을 두고 편 가르기를 하나. 도대체

햇볕정책 찬반에 따라 정계개편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한 대표의 발언은 무엇인가. 정치지도자들의 야합에 따라 호남 대중을 맹목적으로 따라오게 만들겠다는 것인가.

제 목소리 내야

열린우리당에게 묻고 싶다. 대북송금 특검을 할 때는 언제고, 왜 이제 와서 햇볕정책을 사수해야 한다고 불부림치는가.

한나라당은 왜 DJ 눈치를 보나. 북핵사태이후 호남에서 이명박씨 지지율이 처음으로 20%대에 돌입했다. 그는 '핵문제를 가장 잘 해결 할 것 같은 정치인 1위'로 꼽힌 인물이다. 지금 우리는 민족적 위기 앞에 있고,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것에 호남여론이 움직인다는 얘기다.

한대표는 이제 'DJ의 적자'이기만 해선 안 된다. 그는 스승을 뛰어 넘어야 한다. 미국에 불신 받고, 북한에도 고깝다는 소리도 못듣는 신세에서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는 이제 호남 대중을 DJ로부터, 맹목적인 햇볕정책으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 그리고 DJ도 '청출어람'(靑出於藍)의 기쁨으로 한 대표를 놓아주어야 한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광주 모독한 김용갑 의원 '해방구' 망언

'원조 보수'를 자처하는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이 26일 국회 통일통외부의 통일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 망언을 했다. 지난 6월 6·15 민족통일대추전이 열린 광주를 '해방구'로 규정한 것이다.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지만 광주와 광주시민 전체를 모독한 망발이 아닐 수 없다.

해방구는 한마디로 '빨갱이들의 세상'이다. 광주시민들이 공산치하를 환영하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했다는 것은 또 다시 색깔론으로 매도하려는 작태일 뿐이다. 아무리 '원조 보수'라지만 정치인의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파렴치한 행위인 것이다.

김 의원의 파문이 확산되자 "광주 시민이나 광주 자체를 이야기한 게 아니며 광주에서 행사를 하며 전단을 뿌린 것에 사과한 뒤 출당 등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의 '해방구'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 의원은 민족통일대추전이 열리고 있

던 지난 6월 16일 한나라당 홈페이지 '국회의원 발언대'에 올린 글에서 "민족통일대추전이 남반부 해방구 선언이냐"며 비난했다.

김 의원은 광주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축전기간 광주는 김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반미'나 '북한찬양'의 경연을 벌인 '해방구'가 아니었다. 북측 단장 인창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장의 '한나라당 집권' 운운의 발언이 있었지만 돌출행동이었고 '친북반미' 성향의 현수막과 유인물도 '평양거리에 어울릴 정도'는 절대 아니었다.

한나라당도 공식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해방구' 발언은 5·18광쟁 당시 쿠데타 주도세력이 광주를 폭도와 내란의 도시로 왜곡한 것과 다를 바 없다. 김 의원의 발언이 당론과 다르다면 광주시민에게 사과한 뒤 출당 등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김 의원 개인 차원의 문제로 치부해선 광주를 두 번 죽이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정치권 '10·25' 호남민심 제대로 읽어라

전남지역 3곳을 비롯한 전국 9개 선거구에서 치러진 10·25 재·보선이 끝났다. 전남 지역 3개 선거구 가운데 2곳에서 무소속 돌풍이 자신의 텃밭이라고 여겼던 여당과 민주당을 압도한 이번 재·보선은 호남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 확연히 보여줬다. 지역구도를 적잖이 허문 이번 선거결과는 여당의 실정에 대한 준엄한 심판인 동시에 텃밭에 안주해 온 민주당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호남을 기반으로 탄생한 여당은 해남·진도 국회의원 보선에서 완쾌한 것은 물론 화순, 신안 등 2곳의 단체장 선거에서는 후보조차 내지 못했다. 여당의 몰락은 국정의 총체적 실패가 자초한 것이며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는 민심의 반영이기도 하다. 네 번의 재·보선에서 0대40이라는 치욕을 당한 것만 보더라도 집권당에 대한 국민의 생각이 어떠한지 능히 짐작할 수 있다. 민주당도 이번 재보선에서 나타난 지

역민심을 성찰해야 한다. 민주당은 해남·진도 보선에서 승리해 '절반의 승리'를 거뒀다고 자랑했다. 하지만, 한때 '허수아비를 내놔도 당선된다'는 텃밭에서 무소속이 2곳의 단체장을 내준 것은 패배라 할 수 있다. 이는 더 이상 지역에 안주해서는 민주당의 미래는 없다는 지역민의 경고다.

제 1 야당인 한나라당은 해남·진도 국회의원 보선에서 8.2%라는 괄목할 만한 득표율을 올렸지만 아직 호남민심을 움직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호남민심에 추방을 던지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광주는 해방구다'라는 망언을 해서 수권정당으로서 면모를 갖추지 못했다. 진정성을 지역민에게 보여주기 전에는 뿌리를 내릴 수 없다.

정치권이 이번 재·보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잘 읽어야 한다. 통렬한 자기반성 없이 선거결과를 전략적으로 이용하려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無等鼓

미국의 인기 작가 톰 클랜시의 '패트리엇 게임'은 최첨단 정보 기술의 면모를 보여주는 점보물이다. 이 소설은 1992년 영화(Patriot Games)로 제작되면서 우리에게도 널리 알려졌다.

'미 해군사관학교 객 라이언(해리스 포드) 박사는 우연히 영국 왕족을 구출한 것 때문에 IRA(Irish Republican Army)로부터 가족이 위협을 받자 CIA로 복귀한다. 그의 업무는 위성사진을 토대로 정보를 분석하는 일이다.'

영화는 첩보위성이 북아프리카 내 IRA 기지의 게릴라들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을 리얼하게 보여준다. 캠프를 기습하는 미군 특공대의 전투 상황은 열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 CIA로 실시간 전송된다.

'패트리엇 게임'의 한 장면처럼, 수천 km 상공을 도는 인공위성이 지구 곳곳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국내 TV도 어떤 사건이 발생한 지점을 방송할 때, 하늘에서 점차 지면으로 화면을 당기면서 세

밀하게 확대하는 위성사진 기술을 쓰고 있다.

포털사이트 '구글'(google)이 '구글어스'(http://earth.google.com)를 통해 위성지도 서비스를 시작했다. 영성은 미국의 상용위성 '퀵버드'(Quick-bird)가 보낸 것으로, 해상도는 60cm다.

이 사이트에서는 무료로 'Google Earth'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 있다. 'Google Earth Pro'는 고해상도의 최신 자료를 얻 400달러에 제공한다.

네티즌들은 마우스로 애인이 사는 아프리카를 찾아볼 수도 있고, 3D 화면을 조절하면서 자신이 CIA 요원인 듯한 재미와 스릴을 느낄 수 있다.

북한 핵 실험 강행 이후 '구글어스'가 폭발적 인기라고 한다. 정부의 부족한 정보 수집 능력에 대한 실망도 편승했을 것이다.

혹여 아는가? 열심히 들여다보고 분석하다 보면, 숨겨진 또 다른 핵 기지를 발견해낼지... /정기태 사회1부장  
meonsan@kwangju.co.kr

'구글어스'



의료칼럼

김명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식생활이 변화됨에 따라 우리 사회에 비만이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다. '비만의 시대'인가 싶을 정도다.

오죽하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처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비만에 대한 관리를 국가보건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비만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보건소와 주민건강증진센터에서도 았다뼉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내놓는 것을 보면 비만에 대한 사회적 경계를 알 수 있다.

현대 문명의 산물인 비만은 음식의 과다섭취와 육체적 비활동이 가장 큰 원인이다. 건강에 끼치는 악영향은 한 두가

지방은 쌓이는 반면 근육량은 적어진다. 이 때문에 근육이 약화돼 척추와 디스크 등을 잘 받쳐주지 못해 디스크 질환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디스크 환자들의 경우 식이요법을 통한 체중조절과 함께 걷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으로 허리근육 강화운동이 필요하다.

특히 50~60대 이후에는 특별히 자세가 나쁘지 않아도 노화가 진행되면서 디스크 수분이 빠져나가 납작하게 찌그러지는 퇴행성 디스크가 진행되기도 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4년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 통계' 2위인 뇌혈관질환 역시 비만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비만은 혈관 건강의 바로미터라고 해도

기고

김기종



참으로 기이한 일이 계속되고 있다. 노인요양시설을 둘러싸고 이를 반대하는 남구 주민 100여명이 두달째 하루도 거르지 않고 거리시위에 나서고 있는데 남구청과 광주 시청은 방치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주민들의 시위 자체를 무조건 편들자는 건 아니다. 그러나 시위는 실정법이 해결하지 못하는 갈등의 표현방편이다. 그리고 시위는 '시위 하는자'와 '시위 당하는 자' 모두에게 고통을 준다. 인애동산의 요양원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거의 하루 종일 구청 안마당과 거리에서 확성기와 북·광고를 동원해 요양원 설립 반대를 외쳐대고 있다. 그들도 생업이 있을진대 왜 날이날 날마다

서 주민들이 시끄럽게 하나보다' 하는 투의 방관은 책임있는 태도가 아닐 뿐 아니라 주민의 인권에 대한 배신행위다. 보다 구체적으로 인애동산의 노인요양시설 건립 계획을 들여다 보면 시위 주민이 아니라라도 몇가지 큰 문제가 있음을 알게된다.

첫째, 현대사회에서 국민은 누구나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행복 추구권을 보장 받는다. 요양시설이 꼭 필요 한 시설이라 할 지라도 인근 주민이 행복 추구권을 침해받았다면 당국은 이를 간과해선 안된다고 본다.

둘째, 인애동산측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보다 쾌적한 위치에 요양시설을 지을 수는 없을까 하는 점이

광주 남구 노인요양원 분쟁 방치 말라

시위를 하고 싶겠는가.

공무를 집행하는 남구청은 물론 인지 역할을 지나는 사람들이나 인근 주민들도 모두 시위 피해를 보고있다.

제대로 된 사회라면 이런 현상이 오래 가도록 방치해선 안된다. 우선 남구청은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지금처럼 "저러다 지치면 말겠지"하는 식의 방치는 안된다. 시위주민들과 적극적인 대화를 해서 구청의 행정, 즉 요양원 설립 허가가 불가피하다 할 지라도 인사를 설명하고 주민들에게 대안을 제시해줘야 한다. 반대로 아무리 실정법상 요양원 허가가 불가피하다 할 지라도 자치시대의 주인인 주민들이 그처럼 반대한다면 달리 방도는 없는지 연구해봐야 한다.

광주시정도 문제다. 상급 자치단체인 광주시는 구청의 일처리를 지켜보고만 있을 게 아니라 적극적인 지도를 해야 한다. 지금처럼 '광주시 어느 한구석에

다. 인애동산측이 요양원을 지으려고 하는 곳은 사방이 아파트로 둘러 막힌 주거 밀집지역이다. 요양원과 담나 사이에 아파트들이 있는 것이다.

셋째, 이 요양원은 치매·중풍 노인들을 수용하게 된다는데 필연고 환자의 사망시 유족들의 통곡이 흘러나오고 치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인근 주거환경을 크게 해치며 마편이다. 이를 보고 납비현상이거나 집단이기주의라고만 몰아붙이는 것은 가혹하다.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먼저 인애동산측은 주민들의 이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자리에 요양원을 지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 한번 더 검토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남구청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한번 실시해 이 문제의 결론을 빨리 내려주길 바란다. (광주시 남구 봉선동 148번지 주민)

비만을 경계해야 하는 몇가지 이유

지가 아니다. 비만인은 정상인에 비해 당뇨에 이르게 될 확률이 2배 가량 높다. 고도비만의 경우엔 5배까지 높아진다.

비만이 건강에 위협한 몇 가지 이유를 들여보자. 통계 발표에 따르면 몸무게는 관절염을 더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폰테인 박사가 국립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연구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60세 이상 노인들의 관절염 위험은 저체중인 경우 12% 정도지만 비만인 경우 60%까지 높아졌다는 결과가 이를 반증한다.

비만은 디스크와 요통을 일으키는 요소이기도 하다. 비만과 운동량은 언제나 반비례를 이루기 마련. 부족한 운동량으로 점점 더 살이 찌고 불어나는 살들을 지탱해 주는 척추 역시 압박을 받게 된다.

비만을 계속 방치하게 되면 몸 안의 관절염을 계속 방치하게 되면 몸 안의

관절염이 아니다. 축적된 지방이 우리 몸속 곳곳에 쌓여 동맥경화·협심증·심근경색·심부전 등과 같은 심장혈관계 질환에 걸리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심혈관질환의 대부분은 예고도 없이 발생한다. 심지어 심장혈관은 70% 이상 막힐 때까지 아무 증상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중년 이후에는 꾸준한 자기 관리가 필요하다. 심혈관질환은 특히 평소 생활 습관이 중요하며 비만과 운동부족, 흡연은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50대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자신의 혈압수치와 콜레스테롤 수치를 체크해야 한다.

또 정상 체중이라고 해도 중년 이후에 많이 발생하는 내장형 복부비만의 위험한 관리는 필수이다. <광주병원 제2내과 원장>

생활정보·인터넷 부동산 매매 광고 주의를

부동산 사기범들이 극성이다. 대표적 수법이 생활정보지나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 매물을 내놓은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부동산 업체 직원으로 소개하며 정보지와 인터넷상에 게재한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받아 줄 테니 차익의 일정 비율을 자신에게 주라는 제안을 했다가 응하면 협회 등록비 등으로 50~100만원 가량을 요구, 돈만 챙기고 잠적하는 것이다.

또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 필요하다며 감정원에서 가치를 감정받을 것을 요구한 뒤

공범의 전화번호를 감정원이라며 가르쳐줘 30~50만원의 감정가를 챙기기도 한다.

문제는 세심하게 살펴보면 쉽게 의심할 수 있는데도 눈앞의 이익에 급급하다보니 쉽게 현혹된다는 데 있다.

이같은 전화를 받게 되면 귀찮다고 무시하지 말고 연락처 등을 받아 놓았다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다른 피해자를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다. <강근영·무안경찰서 송달지구대>

공포 조장하는 무분별한 포교행위 '불쾌'

퇴근길 지하철 돌고개역 입구로 들어가는 데 한 사람이 무언가를 나눠주고 있었다. 받지 않고 지나쳐 갔더니 뒤에서 "안 받으시면 지옥에 간다니깐요"라고 했다.

바깥지만 너무 기분이 나빠 "고약하네, 그게 무슨 말이나"고 했지만 불쾌한 마음이 가라 앉지 않았다. 회사일을 끝내고 가족들

만나러 가는데 "지옥에 간다"는 저주스러운 말을 들으면 누가 가만 있을까.

자신의 종교를 알리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퇴근길 지하철 입구에 버티고 서서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해야 되겠는가. 오히려 나쁜 인상을 심어 줄 뿐이다. ▲김석원·광주시 광산구 인창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 지급합니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시기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정치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사회 1부 2200-618 사진부 2200-690 (F A X 222-4267) 조사부 2200-570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업 2부 2200-552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